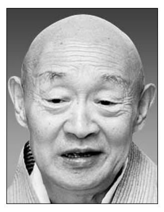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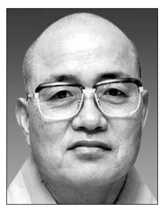
일주문



성도절 맞이 봉축대법회
이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은 10일 오후 2시 청주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맞이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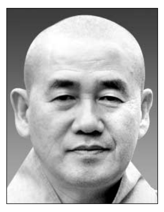
제5회 디지털 동계 캠프
정은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 실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충북 혜능 보육원생들과 함께 제5회 디지털 동계캠프를 연다.



민추본 신년하례회
정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1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하림각 본관 2층 석실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한다.

재소자 교화 법무장관 표창
대성 김해 은하사 주지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교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선시와 화두' 출판기념회
우향 성남 천은정사 주지는 18일 오후 5시 30분 분당 뉴타운 관광호텔 4층 웨딩홀에서 <선시와 화두>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시무식 거행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은 2일 김포학사 세미나실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시무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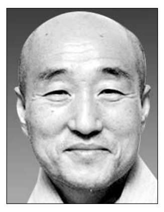
어린이 불교수련회 개최
해련 장흥사 대원정사 주지는 9일부터 12일까지 대웅전 사경방에서 예불, 발우공양 등의 겨울 어린이 불교 수련회를 개최했다.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미술관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교례회를 연다.

선학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산 한국선학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동국대 교수회관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학사 승가대학 동향제
일초 충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강당에서 서예, 다도 등의 제14회 동향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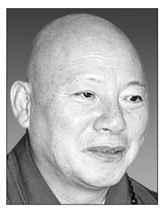
대통령직 인수위원 임명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으로 임명됐다.



광릉보육원에 성금 전달
일면 봉선사 주지는 16일 오전 9시 경기도 송추 광릉보육원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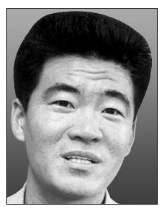
불자련 동지포덕금 전달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17일 오후2시 서울 불자련 사무실에서 동지 포덕금 전달식을 갖는다.

'에세이 문학' 발행인 맡아
맹란자 수필가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간 <에세이 문학>의 발행인 겸 편집인에 임명됐다. (02)747-3508



연합회 포교사 고시 실시
활안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 풍문여고에서 제1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다.

불우이웃 돕기 된장 판매
각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달 31까지 춘천 대각사에서 불우이웃 돕기 된장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02)421-6077



청년불자 집전대회 개최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 회장은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집전능력 배양을 위한 제2회 청년불자 집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①

강건기 전북불교대학 학장

"올해를 전북불교 제2중흥기로 교내 수련관 건립 연내 마무리"

불교의 절대 약세 지역인 전라북도에서 최초의 불교교양대학을 설립, 부처님 말씀 알리기에 전념해온 전북불교대학교 강건기 학장. 계미년 새해를 맞아 강 학장은 "전북불교대학 창립 15년인 올해를 전북불교 제2의 중흥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300여 전법사와 2천여 졸업생을 배출한, 호남 제일의 불교교양대학을 자부하는 전북불교대학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다. 전북불교대 졸업생들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주경찰서, 전주전화국 직장불교 모임 등 전북지역 신행단체의 창립을 주도했고, 이를 지원해 왔다.

"그동안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신심 있는 불자를 배출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난 15년을 회고한 강 학장은 "수행 붐 조성을 위해 올해 내로 전북불교대학 수련관을 마련하는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련관의 건립 목적은 불자들이 지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수행을 통해 불교를 생활화하는 토대를 다지자는 것. 이를 위해 강 학장은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주축으로 꾸려진 전법사회, 경전독송회, 자원봉사회 등의 활성화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와이대학 교환교수로 활동한 강 학장은 "올해는 개인적으로 외부강의를 가급적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보조 지눌스님의 <수심결>에 이어, <진심직설>을 쉽게 풀이한 책을 발간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근본불교>, <대승불교> 등 불교대학 강의 시리즈를 올초까지 발간하고 한국불교사상을 정리하는 저술작업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종단내 인권의식 확산 됐으면"

'박종철 열사 인권상' 제정 진관스님

"박종철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되는 해에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인권상을 제정하는 원을 세우고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하게 돼 한없이 기쁩니다."

'박종철 열사 인권상'을 제정한 진관스님은 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박정기 씨도 불자고 고인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의 외삼촌인 해월스님이 있던 부산 범어사를 자주 찾았지만, 불교계에서 인권상을 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관련기사 5면>

"70년대는 전태일 열사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학생 운동가들의 시대였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박종철 열사 이름으로 상을 제정하자고 여러 차례 종단에 제의했으나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상 제정을 계기로 종단 내 인권의식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불교인권위가 상 제정의 주체로 나서지만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와도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철 열사가 학생 신분에서 희생당했으므로 상은 주로 학생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수여하고, 상금은 모금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월 초파일 쯤 종단에도 지원을 요청할 뜻을 비쳤다.

94년 종단개혁 정신으로 사회 참여를

"94년 종단 개혁이후 개혁을 표방하던 주체세력들이 사회운동에 등한시 하는 걸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단 말입니까. 94년 종단 개혁 정신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법보신문 사장 각현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이 7일자로 법보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각현 스님은 이날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미래를 계도하는 신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사장 각현 스님은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득도, 1974년 11월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1984년), 조계종 제9대, 11대 중앙종회의원, 청주불교방송 사장(1997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꽃마을 이사장, 한국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철우 기자

박문석 차관 시집 '무우전' 펴내

'산문에 서면' '솔바람 속에서' 등 33편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사진>이 시집을 발간해 화제다. 지난 2000년 계간 <오늘의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박 차관은 그동안 틈틈이 써놓은 33편의 시를 <무우전>(도서출판 들꽃 펴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냈다.

시집에는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집'(無憂殿)을 뜻하는 표제작을 비롯해, '산문에 서면' '솔바람 속에서' '해우소' 등 서정적이고 불교적 색채가 짙은 시편들이 실려 있다.

행정고시 16회 출신인 박 차관은 27년의 공직생활을 문화정책 분야에만 보낸 정통 문화행정맨으로, 문화정책국장 종무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차관에 올랐다.

이은자 기자

원주불교사암련 신년하례법회

원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행)은 7일 원주시 원주웨딩타운 3층에서 '국민화합·조국통일·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김기열 원주시장, 사암연합회 신도 등이 참석한 법회에서 원행스님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는데 불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수말사 신년법회

금산사는 7일 전북불교회관 대웅전에서 2547년 금산사 수말사 신년 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평상스님, 전북신도회 김백호 회장, 전주시 김완주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스님은 "올 한해도 바른 원을 세우고 수행 정진, 전북 불교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자"는 법문을 했다.